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중리빙** **옷 부피 절반으로 줄이는 옷정리밴드**

# “옷 말아 밴드 두르면 정리 끝” 주부 마음 잡았다

박소연 중리빙 대표는 2014년 창업 전까지 10년간 전업주부였다. 두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 ‘주부 우울증’도 겪었다. 박 대표는 “당시 집안 정리가 주부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다”고 했다. 집을 청소하면 마음이 그나마 편해졌다는 것. 하지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옷이 있었다. 옷장이었다. 수납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옷을 접어서 쌓아둬도 몇 번 꺼내다 보면 금세 흐트러지고 구겨졌다. 박 대표는 “내가 필요해 옷정리밴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접착제 없어도 붙는다  
중리빙의 옷정리밴드는 옷을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니트·패딩 등 부피가 큰 옷은 동글게 말고, 작은 옷들은 접어 여러 벌을 포갠 뒤 두르면 된다. 박 대표는 “옷정리밴드를 쓰면 수납공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여행을 위해 짐을 쌀 때도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용도인 비닐 압축팩보다 더 간편하다. 압축팩은 손이나 청소기로 안쪽 공기를 빼내야 한

다. 또 오래 보관하면 옷이 쉽게 구겨지곤 했다. 옷정리밴드는 밴드 끝부분이 별도의 접착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붙는다. PVC필름 재질을 썼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스마트폰 화면 보호 필름을 화면에 갖다 대면 달라붙는 것과 같은 ‘고주파 접착 방식’”이라며 “수차례 찢다 붙여도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 없이 10만개 판매**  
**“연말 해외 공략 본격화”**

**비닐 압축팩보다 간편**  
**고주파 접착방식 ... 쉽게 붙어**

“이러다 ‘수차례 찢다 붙여도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처음엔 옷을 넣고 압축하는 플라스틱 팩 제품을 생각했다. 시제품을 만들어줄 업체를 찾아다녔다. 한 공장에 갔을 때였다. 공장 사장의 부인이 “주부 입장에서 필요한 제품이긴 한데 단가도 높고, 쓰기 귀찮아서 잘 안



박소연 중리빙 대표가 옷정리밴드를 쓸 때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중리빙 제공

팔릴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동생이 정리를 참 잘하는데 옷을 돌돌 말아 보관하더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박 대표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밴드’였다. ◆해외서도 ‘러브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 제품 제조를 시작했다. 밴드끼리 들러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 바깥쪽은 서로 붙지 않

는 소재로 바꿨다. 크기도 작은 것 과 큰 것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2월 첫 제품을 내놓았다. 자체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인 G마켓, 11번가 등을 통해 팔았다.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10만개 이상 판매됐다. 주부와 1인가구의 구매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대형 업체와 해외 바이어들도 찾고 있다. 유아의류 회사 보니코

리아와 세탁세제를 파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품을 대량 구매했다. 소비자에게 나눠줄 판촉물로 쓰기 위해서다. 싱가포르항공과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본, 멕시코 등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연락도 오고 있다”며 “제품 단가를 낮추고, 디자인을 가다듬어 연말부터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스엠뿌레-초미립자분무기 (062)959-1511 △에너지코리아-원적외선난방기 1600-9339 △에이펙스인텍-슬림매입LED조명 (054)977-7667 △중리빙-옷정리밴드 (070)4685-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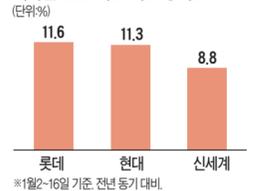
## 동장군 덕에...백화점 첫 세일, 장사 잘했네

**롯데·현대·신세계**  
**8~11% 매출 증가**  
**명품 할인행사도 앞당겨**

성장 둔화로 우울해하던 백화점들이 모처럼 웃었다. 반짝 추위로 겨울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새해 첫 정기세일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외 명품업체들도 겨울 재고 정리를 위한 할인 행사를 보름 정도 앞당겨 연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16일 매출이 작년 첫 정기세일 기간보다 11.6%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의 매출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은 각각 11.3%, 8.8% 증가했다. 백화점의 첫 정기세일은 17일 끝났으며, 최종 실적은 18일 집계된다. 올 들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백화점 신년 세일 매출 증가율



면서 겨울 상품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롯데백화점에선 외투를 중심으로 한 남성 정장류의 판매 증가율이 17.8%로 패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와 골프용품의 증가율도 각각 13.4%, 13.5%로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패션이 25.4%로 1위였고, 여성패션(15.5%) 해외패션(14.4%)이 뒤를 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남성복

(18.9%)이 패션부문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홍정표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 담당 상무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 것을 계기로 겨울 의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혼수 수요도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생활가전 매출 증가율은 25.1%였다. 신세계백화점에선 시계·보석(28.3%)과 가구(22.4%) 매출이 늘었다.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명품 할인 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도 22일부터 서울 강남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수입의류 대전을 연다. 정인설/이수빈 기자 surisuri@hankyung.com



마트와 유명 디자이너의 협업 롯데마트는 패션 디자이너 한상혁, 고태용 씨와 협업한 티셔츠를 판매한다. 한상혁 씨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고태용 씨는 강아지 디자인을 내놓았다. 한창에 2만9900원.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기업인 출신 주영섭 신임 중소기업청장

## “中企 체질개선 통해 글로벌화 이끌겠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내정자(60·사진)는 “중소기업도 이제 해외를 안방 드나들듯 해야 한다”며 “글로벌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 신임 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소·중견기업이 도약해야 한다”며 “그동안 기업과 학계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알맞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차·GE 등서 근무**  
**서울대 공대서 중소기업 R&D 적극 지원할 것**

주 신임 청장은 최초의 ‘기업인 출신’ 중소기업청장이다. 지금껏 중소기업청장은 행정관료와 교수가 맡았다. 주 신임 청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20년간 ‘대우맨’으로 일했다. 대우자동차 중앙연구소에 입사한 뒤 대우전자 기획본부장,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2000년 외국계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제너럴일렉트릭(GE) 계열 사인 전자부

품 제조사 GE씨모메트릭스에서 아시아태평양담당 사장으로 일했다. 이후 자동차 내비게이션 회사 현대오트모빌 대표 등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총괄 투자관리자(MD),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지금은 서울대 공대대학 산학협력추진위원장 겸 기계항공공학부 초빙교수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R&D 지원 강화에 정책방향 초점을 맞출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평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R&D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강연에서는 “주요 대학 안에 중소·중견기업 전용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 확대와 기술전문회사 설립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한 활동도 중소기업 기술 컨설팅이다. 42년 지기인 이진우 서울대 공대학과와 손잡고 서울대 공학컨설팅센터를 세워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기술 및 마케팅 컨설팅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주 신임 청장은 “해외에서 성공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크게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 ‘국산의 힘 프로젝트’ 키우는 이마트

설 주력 선물세트로 육성

이마트가 국산 농·수·축산물을 발굴하는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설의 주력 선물세트 중 하나로 키운다. 작년 추석에는 국산의 힘 프로젝트 선물세트 6종을 처음 선보여 4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설엔 지난 추석보다 세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한우’ ‘임자도 갯벌김’ 등 지난해 판매한 상품에 더해 ‘경주 천년 한우’, ‘상주 명실삼강 한우’,

‘밀양 얼음골 사과’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상품 마케팅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의 앞쪽 4개 면을 국산의 힘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상품별로 생산자 사진과 농가 스토리, 상품 우수성을 알리는 설명 등으로 꾸몄다. 매장 안에도 국산의 힘 선물세트를 주요 진열대에 배치하고 생산자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붙일 계획이다. 이수빈 기자 isb@hankyung.com

선수들의 힘의 원천, 팬!!! 그들과의 추억만들기

## 2016 정관장배 퀸즈배틀

**KLPGA 스타 플레이어와 팬이 배틀존에서 펼치는 스크린 골프대결!**

1월 18일 첫방송 /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방송